

2024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국어 정답

1	①	2	②	3	②	4	③	5	③
6	①	7	②	8	②	9	①	10	①
11	③	12	③	13	③	14	③	15	②
16	⑤	17	④	18	②	19	③	20	④
21	①	22	④	23	②	24	④	25	⑤
26	①	27	③	28	①	29	⑤	30	⑤
31	④	32	⑤	33	⑤	34	⑤		

해설

[1~3] (독서 이론) 천경록, 「독서 교육론」

이 글은 비판적 읽기의 개념과 방법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비판적 읽기는 독자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글을 판단하는 읽기 방법이다. 비판적 읽기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주제적인 관점에서 글을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독서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판적 읽기는 글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내용이나 형식·표현을 파악하는 사실적 읽기와 숨겨진 내용들을 짐작하는 추론적 읽기를 통해 글의 내용과 형식·표현을 어느 정도 이해한 다음 이루어진다. 비판적 읽기를 위해서는 판단의 준거가 필요한데, 그 준거는 내용과 형식·표현에 대한 준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내용에 대한 준거로는 타당성, 공정성, 신뢰성이 있다. 타당성은 글에 나타난 내용이 합리적이며 옳은 지에 대한 것이고, 공정성은 글의 주제, 필자의 관점과 태도와 관련하여 이것들이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신뢰성은 글의 내용이나 글에 사용된 자료가 믿을 만한지에 대한 것이다. 형식·표현에 대한 준거는 글의 구조, 내용 전개, 표현의 적절성과 효과라 할 수 있다. 독자는 글에 드러난 내용을 바탕으로 글의 구조, 내용 전개, 표현이 주제를 잘 드러내도록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표현되어 있는지를 판단한다. 독자는 비판적 읽기 과정에서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나 적절한 형식·표현을 접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접한 독자는 단순한 비판이나 수용에 그치지 않고 관련된 주제의 글을 찾아 비교하며 읽거나 토론하면서 주제적인 관점에서 글을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할 수 있다.

1.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이해한다.

마지막 문단에서 비판적 읽기는 독자가 주제적인 관점에서 글을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비판적 읽기를 통해 독자는 글의 내용을 주제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3문단에서 형식·표현에 대한 비판적 읽기는 내용에 대한 비판적 읽기와 함께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비판적 읽기에서 독자는 형식·표현적 준거와 내용적 준거를 함께 사용한다.

2. [출제의도] 정보를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

①에서 독자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어휘를 사전에서 찾으며 뜻을 파악하고 있다. 이때 독자의 읽기는 어휘의 사전적 의미를 파악하여 글의 표면적인 내용만을 파악한 것으로 비판적 읽기가 아닌 사실적 읽기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③ ㉠에서 독자는 글에 드러나지 않은 인공 지능 고도화에 대한 필자의 입장을, 필자가 인공 지능 고도화에 따른 우리 사회의 긍정적 변화만을 언

급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추론하였다. 2문단에 따르면 이는 독자가 필자의 의도나 입장 등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 것에 해당한다.

3. [출제의도] 글의 정보를 이해한다.

3문단에서 형식·표현에 대한 비판적 읽기는 글의 구조, 내용 전개, 표현이 적절하고 효과적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독자가 형식·표현에 대한 비판적 읽기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읽은 글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표현의 적절성과 효과를 판단하며 읽어야 한다.

[오답풀이] ① 3문단에서 독자가 글의 구조가 글의 주제나 글의 목적을 잘 드러내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을 형식·표현에 대한 비판적 읽기라 하였다.

[4~9] (인문 주제 통합) (가) 서민규, 「21세기 유럽의 실재론자들」, (나) 황유경, 「굿맨의 세계 제작과 진리 이론 소고」

(가) 서민규, 「21세기 유럽의 실재론자들」

현대 철학자 메야수는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실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존재가 실재함을 밝히기 위해 ‘선조적인 것’은 인간이 나타나기 이전에 실재했음을 과학의 발견들이 입증했다고 주장하면서 선조적인 것이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실재한다는 증거라고 보았다. 그는 사유와 독립한 존재는 가능성을 가진 우연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인간은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가진 가능성들에 대해 사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그가 명명한 상관주의의 입장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그는 상관주의가 인간의 사유를 대상과 사유의 관계로 한정시켜 놓았다고 보았다. 결국 메야수의 주장은 인간의 사유와 세계의 확장을 시도하는 것이다.

(나) 황유경, 「굿맨의 세계 제작과 진리 이론 소고」

굿맨은 세계가 버전에 의해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버전은 대상을 배열하고 범주화하는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인 기호들의 체계이다. 버전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간이 존재하던 모든 시기에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가 주장하는 버전은 상대적이며 다양하다. 이는 버전이 구성하는 세계 역시 상대적이며 다양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굿맨은 버전이 세계를 구성한다고 주장했지만 모든 버전이 세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아니다. 그는 옳은 버전만이 세계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옳은 버전은 적합함으로 판단이 된다. 적합함은 실용, 범주, 세계에 대한 설명적인 측면에서 버전이 적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옳음에 대한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고 변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버전이 바뀔 수 있음과 버전이 세계를 구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임을 의미한다. 버전에 대한 굿맨의 주장은 다양한 세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출제의도] 글의 설명 방식을 이해한다.

(가)의 2문단에서 ‘선조적인 것’의 개념을 서술하고 ‘46억 년 전에 최초의 지구가 존재했다.’를 사례로 들고 있다. 특히 ‘선조적인 것’은 메야수의 주장과 관련된 개념으로 이는 구체적 예를 통해 설명되었다. (나)에서는 굿맨의 버전에 대해 서술되어 있다. 1문단에서 천동설이나 지동설과 같은 것을 버전이라고 하여 버전의 예를 들면서 버전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는 메야수의 주장과 관련된 개념을, (나)는 굿맨의 주장과 관련된 개념을 예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나)에서 굿맨의 철학은 과학 분야에서 파생된 철학 이론이 아니다. 또한 (나)에서는 세계 구성에 대한 굿맨의 철학적 주장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철학 이론의 확립 과정을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

5.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가)의 2문단에 따르면 메야수는 사유와 독립하여 실재하는 존재로 ‘선조적인 것’을 들고 있다. 선조적인 것은 인간이라는 종의 출현에 선행하는 존재 전부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유와 독립하여 실재하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가)의 2문단에서 메야수의 철학은 상관주의가 인간의 사유를 대상과 사유의 관계로 제한했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했다.

⑤ (가)의 1문단에서 근대 철학자들 중에는 감각되지 않은 물리적 대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대상의 실재함은 사유에 의존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다.

6. [출제의도] 글의 핵심 정보를 이해한다.

(나)의 3문단에서 적합함으로 버전의 옳음을 판단한다고 했으며 옳은 버전만이 세계를 구성한다고 했다. 따라서 적합하다고 판단된 버전은 세계를 구성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③ (나)의 2문단에서 버전들이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간이 존재하던 모든 시기에 존재한다고 했다. 따라서 인간이 존재하지 않던 시기에 버전은 존재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7.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가)의 1문단과 2문단에 따르면 상관주의자는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실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나)의 2문단에서,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는 실재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므로 상관주의자와 굿맨 모두, 사파가 실재한다고 말하려면 ㉠에 관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오답풀이] ①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상관주의는 사유와 대상이 따로 분리되어서는 어떤 것도 접근이나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나)의 1문단에 따르면 굿맨은 버전들에 의해 세계가 구성된다고 주장했다. ③ (나)의 3문단에서 굿맨은 적합함으로 버전의 옳음을 판단한다고 했다. ⑤ 상관주의자에게 ㉡과 ㉢은 모두 대상이다.

8. [출제의도] 서로 다른 입장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한다.

<보기>의 철학자 B는 ‘감각에 따른 인식’과 ‘감각되는 대상’ 모두 실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가)의 2문단에 따르면 메야수는 사유 의존적인 대상이 실재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메야수의 관점에서 ‘감각되는 대상’은 실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보기>의 철학자 A는 세계는 감각으로 인식될 때만 존재한다고 보았다. ‘선조적인 것’은 인간이라는 종의 출현에 선행하는 존재 전부이므로 인간이 감각할 수 없다.

9.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를 이해한다.

㉠에 해당하는 어휘는 ‘형성’이다. ‘형성’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형상을 이루.’이다. ㉠에 제시된 ‘도워서 이루게 함.’은 ‘조성’의 사전적 의미에 해당한다.

[10~13] (기술) 정용택, 「센서 물리학개론」

디지털카메라의 이미지 센서는 빛의 밝기를 이미지 데이터로 변환하는 기능을 한다. 화소는 빛에 반응하는 소자이며, 해상도는 이미지 센서가 얼마나 세밀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을지 나타내는 척도이다. 디지털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화소를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ADC)’에 연결해 데이터 변환을 해야 한다. ADC는 입력 전압의 값을 데이터로 변환하여 출력할 때 비트로 표현하며, 데이터 폭이 넓은 ADC를 쓰면 세밀한 명암의 표현이 가능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또한 ADC의 성능 판단의 지표로 분해능과 변환 시간

을 사용한다. 화소와 화소의 수만큼 ADC를 일대일 연결해 한 번에 전체 데이터를 얻을 수 있지만, 이를 이미지 센서에 만들어 넣기는 어렵다. 그래서 전체 화소를 순서에 따라 일정한 개수로 묶은 블록으로 나누고 이것을 순서대로 여러 번 ADC로 보내 블록 단위로 데이터로 변환한 후 이를 다시 모아 한 장의 사진을 얻을 수 있다. 이때 ADC의 개수가 화소의 수보다 적어도 되지만, 이 방식은 사진 한 장의 전체 변환 시간이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10.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다중 스위치는 M개의 입력을 N개씩 여러 개의 블록으로 나누고 블록 단위로 N개의 출력으로 연결해 주는 장치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N은 M과 같거나 M보다 작아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다중 스위치의 입력에 연결되는 개수는 출력에 연결되는 개수와 같거나 그보다 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⑤ 빨강, 초록, 파랑의 서로 다른 파장의 빛에 반응하는 화소를 묶어 한 개의 화소로 구성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11. [출제의도] 글의 정보를 이용해 추론한다.

화소의 수만큼 ADC가 있으면 일대일로 연결하여 한 번에 전체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ADC가 화소의 수보다 적으면 한 번에 전체 이미지를 데이터로 변환하지 못하고 여러 번 나누어 변환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변환하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ADC의 개수를 늘리면, 전체 변환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든다.

12. [출제의도] 핵심 정보의 원리를 파악한다.

피사체에 반사된 빛이, 디지털카메라 렌즈를 통해 화소가 격자 모양으로 배열된 '화소 평면'에 상으로 맺힌다. 화소가 빛에 반응하여 노출된 빛의 세기에 비례하는 전압을 출력하고, 이 출력 전압이 ADC에 입력되어 데이터로 바뀐다. 그리고 그 사이에 다중 스위치를 이용하므로, '㉠'에는 '화소 평면', '㉡'에는 '다중 스위치', '㉢'에는 'ADC'가 들어가야 한다.

13.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이해한다.

㉠의 '나누다'는 하나를 둘 이상으로 가른다는 의미이다. ㉡의 '나누다'는 글을 세 문단으로 가른다는 의미이므로, ㉠과 마찬가지로 하나를 둘 이상으로 가른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② 말이나 이야기, 인사 따위를 주고 받는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④ 즐거움이나 고통, 고생 따위를 함께 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⑤ 음식 따위를 함께 먹거나 갈라 먹는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14~17] (사회) 송덕수, 「친족상속법」

법률상 유언은 사람이 자신의 사망으로 권리관계의 변동이 일어나게끔 일방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법률 행위라 할 수 있다. 유언으로 재산을 넘겨주는 것을 유증이라 하는데, 유증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언자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한다. 유증은 특정 재산에 대해서 하는 특정 유증과 전체 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를 또는 그에 대한 일정 비율을 정하여 상응하는 몫을 물려주는 포괄 유증으로 나누어진다. 유언의 의사 표시는 법이 규정한 일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보장한다. 사람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철회도 할 수 있다. 또한 유언으로 재산 처분의 내용과 방식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정 상속인 이외의 사람을 상속인으로 지정하거나 공동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률로 정해진 비율과 달리 정하는 유언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유증으로써 상속분이 실질적으로 조정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는 있다. 한편,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그의 재산 관계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 효과가 의사 표시가 아니라 사망이라는 사건으로 생긴다는 점에서 법률 행위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14.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2문단에서 원칙적으로 계약은 특별한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당사자가 말로만 합의해도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하였다.

[오답풀이] ① 3문단에서 사람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철회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② 4문단에서 상속은 포괄적 승계라서 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도 이전된다고 하였다. ⑤ 2문단에서 유언의 의사 표시는 법이 규정한 일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자필 증서로 하는 유언도 법으로 정한 방식을 따라야 한다.

15. [출제의도] 글의 핵심 정보를 이해한다.

1문단에서 유증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언자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하였다.

[오답풀이] ④ 1문단에서 유증과 증여는 모두 의사 표시를 기반으로 하는 법률 행위라고 하였다. 4문단에서 상속은 법률 효과가 의사 표시가 아니라 사망이라는 사건으로 생긴다는 점에서 법률 행위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16. [출제의도] 글의 정보를 이용해 추론한다.

3문단에서 법정 상속인 이외의 사람을 상속인으로 지정하거나 공동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재산의 비율인 상속분을 법률로 정해진 비율과 달리 정하는 유언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6문단에서 상속 재산 전부가 특정한 자녀에게 유증되는 일도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제1 순위 법정 상속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재산의 일부를 유증하면 법률로 정해진 상속분은 변하지 않지만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그러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오답풀이] ④ 3문단에서 공동 상속인의 상속분을 법률로 정해진 비율과 달리 정하는 유언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법정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분을 서로 다르게 정하는 유언을 하더라도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물려줄 수 없다.

17.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

4문단에서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될 자격의 순위를 정해 놓아서, 후순위자는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된다고 하였다. X의 부모는 직계 존속으로 제2 순위이고 아들 A와 딸 B는 직계 비속으로 제1 순위이므로, X의 부모는 사망한 X의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X의 배우자, 아들 A, 딸 B의 상속분은 법률로 정해져 있다.

[18~23] (갈래 복합) (가) 정훈, 「우활가」, (나) 이증경, 「오대어부가구곡」, (다) 이인상, 「다백운루기」 (가) 정훈, 「우활가」

정훈(1563~1640)은 조선 중기의 향촌 사족으로 한 시문 30여 편, 시조 20수, 가사 5편의 작품을 자신의 문집인 『수남방옹유고』와 『방옹유고』에 남겼다. 그가 남긴 가사 5편에는 내외외환이 끊이지 않았던 17세기에 제도권 주변부에 있던 사대부의 시대 인식과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인식, 실제 생활의 구체적 국면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작품 제목에 쓰인 '우활'이라는 말은 어리석어 세상에 뒤처진 것을 뜻하는 한편, 세상과의 불화를 감수할 만큼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윤리적 가치를 우직하게 실천해 나가는 태도를 의미하기도 한다. 작품의 화자는 단락마다 '우활'하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우활함을 토로한다. 그러면서 유교적 윤리 도덕의 실천을 위해 평생 노력했으나 삶에서 이룬 바가 없는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

기도 하고, 가난에 구애받지 않고 세속적 세계에 대한 근심도 잊은 채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사는 자신의 모습에 자긍심을 느끼기도 한다. 아울러 자신의 삶이 우활한 원인을 시대를 잘못 타고난 데에서 찾으며 타락한 현재의 세태를 비판하고 유교의 성현들이 살던 오래전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소망을 피력하기도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우활함에서 비롯한 시름을 슬로 잊으려 하는 모습을 보인다.

(나) 이증경, 「오대어부가구곡」

이증경(1599~1678)은 청도를 지역적 기반으로 하여,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고 문학 활동을 했던 향촌 사족이다. 그는 17세기 강호기도 시가의 변모상을 잘 보여 주는 사대부 문인으로 평가받는다. 강호기도 시가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로부터 생겨나는 정취를 노래한 시가 문학 작품을 총칭하는 말로서, 조선 전기에는 자연에서 누리는 풍류와 더불어 자연에서 얻는 도학적 깨달음을 드러내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의 전란을 겪은 후인 17세기에 오면, 도학적 깨달음에 관한 내용이 약화되고 작가의 체험에 바탕을 둔 심미적 의식이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인다. 「오대어부가구곡」은 그러한 조선 중기 강호기도 시가의 변모상을 잘 보여 주는 작품 중 하나이다. 이 작품은 작가가 청도 운문산 일대를 유람하다가 오대의 자연 풍경에 매료되어, 그곳에서 은거 생활을 하면서 지은 총 9수로 구성된 연시조이다. 작품에서 작가는 속세를 멀리하면서 자연에 묻혀 유유자적한 삶을 사는 어부로 자신을 형상화한다. 아울러 탈속적 공간으로서 자연의 아름다운 풍광을 예찬하고, 그 안에서 누리는 극진한 즐거움을 노래한다.

(다) 이인상, 「다백운루기」

이 작품은 조선 후기에 문인이자 화가로 이름이 높았던 이인상(1710~1760)의 한문 산문이다. 작가는 음죽 현감으로 있던 1751년에 경치가 아름다운 단양 구담봉 근처에 정자를 짓고 '다백운루'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 후 정자와 관련해 자신이 겪었던 사유의 경험과 그로부터 얻은 깨달음을 제재로 삼아 쓴 글이 이 작품이다. 이 작품의 주제는 참된 즐거움은 아름다운 자연이 아니라 공부(독서와 수양)에 있다는 것이다. 작품에서 작가는 사유의 변화 과정을 보여 주는데 처음에는 '구담에 항상 머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좋은 구름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이게 걱정일세.'라고 말하면서 자연이 주는 즐거움을 충분히 누리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것에 근심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그 이후에 작가는 자연은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외물'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자연과 달리 공부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니 공부가 주는 즐거움이야말로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참된 즐거움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와 같은 사유의 결과를 드러낸 말이 작품 말미에 나오는 '좋은 구름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님과 구담에 항상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님에 대해 걱정할 겨를이 있겠는가.'이다.

18.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가)는 '우활도 우활할사 그토록 우활할사', '우활할사 우활할사 그토록 우활할사', '알던가', '어이 알며', '어이 알리'와 같은 유사한 구절을 반복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부각한다. (다)는 '구담에 항상 머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좋은 구름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이게 걱정일세.'라는 구절과 '좋은 구름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님과 구담에 항상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님에 대해 걱정할 겨를이 있겠는가.'라는 구절이 상응하면서 참된 즐거움에 관한 화자의 생각을 부각한다.

[오답풀이] ③ (가)에는 사계절의 변화가 제시된 반면, (다)에는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나)와 (다)에 이상적 세계에 대한 동경은 나타나 있

지 않다.

19.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인간의 시비 들도 보도 못하거든’은 뒤에 이어서 나오는 ‘일신의 번성과 쇠락 백 년을 근심할까’와 연결되어, 자신의 삶이 어지러운 속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근심 걱정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이는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보여 주는 것이므로, 해당 표현이 현실과의 괴리를 겪는 화자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 표현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0. [출제의도] 시어와 구절의 의미를 파악한다.

㉔에서 화자는 자연물인 물고기와 새우를 벗으로 삼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화자는 자연에 대한 친근감을 나타내고 있다.

21. [출제의도] 소재의 의미를 파악한다.

㉑(일간모옥)은 ‘아침이 부족’해도 ‘저녁을 근심하’지 않고, ‘비 새’는 집이지만 그런 줄도 모르며 ‘누더기 옷’을 입고 살아가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장소이다. 다시 말해 가난한 삶의 장소이지만 가난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곳인 것이다. ㉒(집)은 여기서 ‘물’, ‘돌’과 같은 자연물을 말한다. (나)의 <제3수>에서 화자는 자연물을 ‘집’으로 삼겠다고 말하면서 자연 친화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㉑을 가난을 개의치 않는 공간으로, ㉒을 주변의 자연 사물에 친근감을 느끼는 공간이라고 설명한 것은 적절하다.

[오답풀이] ㉒ ㉑은 화자가 충만한 기쁨을 느끼는 자연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㉒이 화자의 비참한 상황을 드러내는 곳이라는 설명은 적절치 않다. ㉓ ㉑과 ㉒은 모두 현실 세계의 공간이다.

22.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이 맛을 인간 세상에 제 뉘랴서 알리오’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자연의 흥취를 자기 혼자만 알고 누리는데에서 오는 자부심과 만족감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그러므로 자연의 흥취를 세상 사람들과 함께 누리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인식을 드러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그뿐 아니라 해당 표현을 통해 화자는 자연에 대한 긍정적 정서를 뚜렷이 드러내고 있으므로, 화자가 자연을 결별해야 할 공간으로 인식했다는 설명도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㉓ ‘무이구곡’은 중국에 있는 풍광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다. 그러므로 화자가 자신이 머무르고 있는 자연 공간을 ‘무이구곡’에 비견한 것은, 자신이 살고 있는 자연에 대한 높은 만족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23.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를 파악한다.

‘고요하여 움직임이 없’는 것은 ‘맑은 구름’이 아니라 ‘천지의 마음’이다. 그리고 작가가 ‘맑은 구름’을 좋아하는 것은 그것이 ‘신기하게 변화하면서 다양한 형상을’ 띠기 때문인데, 작가는 ‘그 신기하게 변하고 유동하는 모습도’ ‘중신토록 조용히 앉아 밤낮없이’ 보면 ‘도리어 한 덩어리 물건에 불과하게 되어 보는 이를 싫증 나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나’가 ‘고요하여 움직임이 없’는 ‘맑은 구름’에 싫증이 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4~26] (현대시) (가) 김기림, 「태양의 풍속」, (나) 천양희, 「마음의 수수밭」

(가) 김기림, 「태양의 풍속」

이 시는 자연물인 ‘태양’을 소리 높여 부르는 행위를 통해 태양을 곁에 데려오기 위한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형상화하고 있다. ‘태양’은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새로운 정신으로, 화자는 마음의 무너진 터 위에 태양을 모시고, 어머니, 고향, 사랑, 희망이라 부르겠다고 하면서, 태양이 아침을 데리고 오는 유쾌한 손님

처럼 찾아와 화자의 가슴속에서 불결한 것들을 없애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어둠과 밝음의 대립적 속성을 가진 시어들을 활용하는 시상 전개 방식을 통해 잘 드러나 있으며, 새로운 시 세계를 지향하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나) 천양희, 「마음의 수수밭」

이 시는 화자의 내면을 ‘수수밭’에 비유하여 공간화하고, 화자를 일깨우는 다양한 대상을 활용하여 내면 의식의 변화와 성찰을 형상화하고 있다. 내적 혼란을 겪고 있는 화자는 어둡고 괴로운 마음 상태에서 산을 올라다보기도 하고, 산을 오르기도 하면서 하늘과 푸른 것을 보게 되는데, 처음에 땅을 향하고 있던 화자의 시선이 산 위의 산, 하늘로 향하게 되면서 점점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고 심리적 안정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 감각적으로 드러나 있다.

24.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을 파악한다.

(가)에서 화자의 내면을 ‘푸른 잔디밭’, ‘흰 방천’에 비유하면서 색채어를 사용하였다. (나)에서도 화자가 올라다보는 하늘의 자리를 ‘성심하게 푸르다’고 했고, ‘푸른 것’들이 화자를 올라가라고 하는 장면에서 색채어를 사용하였다. (가)와 (나)는 모두,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적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㉒ (가)의 ‘간밤’, ‘아침’, ‘밤’이 시간성을 드러내고 있고, (나)의 ‘저녁’이 시간성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가)와 (나) 모두 시간성을 드러내는 표지를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5.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한다.

㉔은 내적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세상에 속한 공간이다. 화자가 세상에 없는 길을 만들 수가 없다고 한 것은, 힘들지만 세상에 속한 길에서 내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화자가 좌절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없다.

[오답풀이] ㉑ ‘두루미의 목동’은 화자가 태양을 소리 높여 부르기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다만 한 번이라도’와 연결하여 태양을 데려오기 위한 화자의 간절함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㉒ ‘간밤의 서리’는 부정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가 자신의 가슴속에서 없애고자 하는 대상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26.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가)에서 ‘나의 바다의 요람을 흔들’라고 한 것은 태양의 기운으로 화자의 내면에 생명력을 힘껏 불러일으켜 주기를 바란다는 의미이므로 화자의 내적 혼란을 심화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에서 ‘내 막막함도 올라간다’고 한 것은 내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분투의 과정을 보여 준 것이므로 현실의 고달픔을 심화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오답풀이] ㉒ (가)의 ‘아침’은 밝음의 속성, ‘밤’은 어둠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명암의 대립이, (나)의 ‘하늘’과 ‘땅’ 사이에는 공간적으로 상하 대립이 드러나므로 대립적 시어를 통해 시상을 전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㉓ (가)의 ‘서러운 나의 시’는 태양의 속성을 갖추지 못한 시이므로 새로운 시 정신을 갖추지 못했음을, (나)의 ‘수수밭이 환해진다’는 화자가 심리적 안정을 느끼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27~30] (현대 소설) 이청준, 「별을 보여 드립니다」

이 작품은 1960년대를 배경으로, 주인공인 ‘그’가 변모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는 쫓기듯 간 영국 유학에서 학위를 따지 못하고 귀국한 뒤, 주위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 채 외로움을 느끼고 있으며, 절도와 거짓말을 아무렇게나 하는 습벽이 붙게 된다. 또한 망원경으로 자신만 별을 보면서 남들에게는 보여 주지 않는다. 어느 날 ‘그’가 영국 유학을 다시 가

겠다고 하지만 친구들이 마련한 환송회 날 강가에 가서 영국행은 거짓말이라고 말하며 망원경을 강물에 밀어 넣는 장례를 치른다.

27. [출제의도] 인물에 대해 이해한다.

‘그’가 ‘진이’를 향해 눈을 열자 ‘나’는 당황하지만 ‘그’의 생활에 변화의 가능성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다. 즉 ‘그’가 거짓말이라는 어휘를 기억해 낼 수 있으리라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와 ‘진이’의 일을 모른 채하며 곁에서 그냥 지켜보기만 하고 직접 개입하지는 않는다.

[오답풀이] ㉑ ‘그’는 영국 유학에서 학위를 갖지 못한 채 돌아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회화 교습으로 하숙비를 충당한다. 지면도 없었고 지면을 만들 만한 주변머리도 없는 ‘그’는 학위를 가져오지 못한 한국적인 약점을 보충하지 못한다. 따라서 ‘그’가 유학 경력으로 인간관계를 만들려 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㉒ ‘그’가 걸핏하면 외로운데 소리를 함부로 내뱉으며 쏘다니는데, ‘나’가 ‘한됐다’라고 서술한 것으로 보아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본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이다. 또한 ‘나’는 외롭다는 말의 뉘앙스를 치사한, 즉 남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느낀 것으로 보기 어렵다. ㉔ ‘나’는 ‘그’가 ‘진이’를 사랑한다고 말하게 될 때 그녀는 ‘그’로부터 떠나리라고 예상하고 있다. ㉕ ‘진이’가 ‘그’로부터 떠난다는 것은 ‘나’의 예상이지 실제로 일어난 것은 아니므로 ‘그’가 그녀로부터 상처를 입는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28.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서술자 ‘나’는 친구인 ‘그’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A]에서 ‘나’는 ‘그’가 보인 망측한 습벽, 즉 절도와 거짓말에 대해 서술하면서, 그것을 변명하지 않거나 아무렇게나 한다는 등의 분석 내용을 서술한다. 이러한 서술은 ‘그’가 보인 일이나 태도에 대해 요약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㉒ 도벽, 함부로 하는 거짓말과 관련한 사건이 제시되어 있지만 그것에 대한 상이한 관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㉓ 도벽과 함부로 하는 거짓말은 대립되는 행위도 아니고, 그것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공간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지도 않다. ㉔ 서술자인 ‘나’에게 비친 ‘그’의 모습이 서술되어 있고, ‘그’가 보인 도벽과 거짓말의 의미를 ‘나’ 이외의 인물이 해석하고 있지는 않다. ㉕ ‘그’의 내면 의식을 드러낸 내적 독백은 제시되지 않았다.

29.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와 태도를 이해한다.

‘나’는 ‘그’가 영국 간다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말하자 ㉔이라고 자신의 느낌을 말한다. ‘나’는 ‘그’가 영국행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즉 거짓말의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의 입에서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소리로 되어 나오는 것이 처음이라는 것에 관심을 보이며 ㉑과 같이 말한다.

[오답풀이] ㉑ ㉑에 대해 주위 사람들은 정면으로 인정하고 나서지 않는다. ㉒ ‘나’가 ‘그’를 ㉑으로 인식한 원인은 ‘그’가 거짓이 스스로 거짓임을 망각해 버릴 때 무서운 파괴력을 지닐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30.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보기>에 의하면 ‘그’가 사회적 관습으로 회귀를 선택한다고 했으므로 거짓말과 같이 사회적 관습으로부터 벗어났던 행위를 중단하고 그 관습을 수용할 것이다. ‘그’가 거짓임을 망각한 것처럼 보였다가 거짓말이라고 시인하자 ‘나’는 ‘그’의 내부에서 아직도 거짓말이라는 말의 어의가 부서져 허물어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그’가 사회적 관습을 수용한 것이라는 ‘나’의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

다.

[오답풀이] ① '나'는 '그'가 거짓말을 아무렇게나 한 것에 대해 이해를 못 했는데, 그것은 '그'의 생활이 정상적이지 못한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보기>에 따르면 그 인식은 '그'가 사회적 관습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인식이다. ② '이놈'은 망원경으로서, '그'는 그것을 팔지 않고 강물 아래로 밀어 넣는다. 이는 '그'가 계속해서 꿈을 꾸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서, <보기>를 참고하면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31. [출제의도] (고전 소설) 작가 미상, 「정세비태록」

이 작품은 중국 청나라를 배경으로, '화신'의 악행에 맞서는 '안경'과 그의 두 아들 '안대후', '안대순'을 주인공으로 한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안경과 두 아들은 반란을 진압하여 공을 세우면서 화신과 대립한다. 화신이 안대순의 아내 부인 경 씨가 뛰어나다는 말을 듣고 계교를 부려 억지로 첩을 삼고자 하자, 그녀의 쌍둥이 남자 동생인 경몽필이 여장을 하여 부인 경 씨의 모습으로 화신의 집에 갔다가, 오히려 화신의 딸을 만나 사랑하게 되고 결국 아내로 맞이한다. 한편 안경은 병이 들어 죽게 되고, 거리낄 것이 없어진 화신은 안대순이 몽고의 반란에 연루되었다고 모함하는데, 모함이 들끓날 것 같자 안대순을 몰래 죽인다. 또한 화신은 안대후를 유배 보낸 뒤, 안대후의 가족들을 위협에 빠뜨린다. 그러나 안대후의 가족은 위기를 모면하고, 안대후와 다시 만나게 된다. 이후 새 황제가 즉위하여 안대후는 높은 벼슬을 얻고, 화신과 그 일당은 처형을 당한다. 이 작품은 안경과 그의 가문, 화신과 그의 일당이 대립하는 양상을 입체적으로 그려 내며, 그 과정에서 충신과 간신의 정치적 대립, 남녀의 사랑, 혼사 장애 등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진다.

31. [출제의도] 서사 전개 양상을 이해한다.

조정에서 흉악한 도적을 물리치려 위험한 지역에 갈 신하를 논의하는데, 간신인 화신은 정적인 안대후를 추천하고 다른 신하들도 화신의 눈치를 보며 그에 동의한다. 임금도 안대후를 보내고 싶지 않지만, 신하들의 의견으로 인해 마지못해 안대후에게 갈 것을 명령하는데, 그러자 안대후는 아우인 안대순과 함께 가겠다고 말하고, 임금은 그것을 허락한다. 임금은 안대후가 아우와 함께 가겠다고 하자 형제가 모두 위험한 곳에 가도 되겠냐며 만류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자 안대후는 충신의 도리를 언급하며 임금이 이를 허락할 것을 요청한다. 즉, 임금은 형제가 함께 위험한 지역에 가는 것을 걱정한다. 또한 안대후는 처음부터 안대순과 함께 가려고 했다.

[오답풀이] ① 신하들은 안대후를 위험한 지역에 보내고 싶어 하는 화신의 뜻을 짐작하고 임금의 뜻과는 다르게 안대후를 추천함으로써, 임금을 곤란하게 한다. ② 신하들이 안대후를 추천하자 임금은 안대후가 자신의 수족이라며 반대한다. 그러나 화신이 재차 안대후를 추천하자 결국 화신과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인다. ③ 화신은 임금에게 흉악한 도적을 물리칠 인물로 안대후를 추천하면서, 과거에 안대후의 부친 안경이 아들들을 추천했던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임금의 동의를 얻어낸다. ⑤ 안대후가 안대순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한 임금은 황금 삼천 냥을 사급하고 곤장 출발할 것을 명령한다. 이에 형제는 하직하고 집에 돌아와 행장을 차린다.

32. [출제의도] 소재의 서사적 기능을 파악한다.

안대후는 귀양지에서 풍토의 병에 걸린다. 여화가 만청길에게 잡혀가기 전까지는 여화가 극진히 간호하였으나, 여화가 잡혀간 뒤로는 병세가 날로 심해져 죽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 된다. 이때 안대후는 문득 잠깐 졸게 되는데, 꿈에 노인이 나타나 약을 주자 그

것을 먹는다. 그 뒤 안대후는 꿈에서 깨어나는데 입에서 약내가 나며 정신이 상쾌해지고 병에서 낫게 된다. 꿈속에서 약을 먹었는데, 꿈에서 깨어난 뒤에 입에서 약내가 난다는 것은, 꿈속 경험과 꿈 밖 경험이 물건의 효력을 통해 증명되는 것이고, 이는 꿈과 현실의 경계가 불분명함을 말해 주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지문에서 안대후가 꿈꾸기 전에 혈육과 만나고 싶어 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으며, 꿈속에서 혈육의 소식을 들을 뿐 혈육을 만나지는 않는다. ② 지문에서 안대후가 꿈에서 깨어난 뒤에도 노인을 만나거나 인연을 이어 가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③ 지문에서 안대후가 꿈을 꾸기 이전에 나타나는 인물 간 갈등은 화신 일당인 만청길에 의해 안대후 가족인 여화가 핍박을 받는 것인데, 이 갈등이 꿈을 통해 해결되는 양상은 찾아볼 수 없다. ④ 꿈속에서는 노인만 발언을 한다. 노인의 발언 중에는 인물이 가야 할 목적지가 제시되지 않는다.

33. [출제의도] 인물의 특징을 이해한다.

고전 소설에서 조력자의 양상과 역할은 다양하다. 조력자의 조력은 출신 가문을 막론하기도 하고, 그 능력은 현실적 자원을 넘어서기도 하며,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한다. 사명사에서 온 노인은 부인 엄 씨와 부인 경 씨의 구출을 도와주는 조력자로서 신이한 능력을 발휘해 두 부인을 강도에게서 벗어나게 해 준다. 이 덕분에 두 부인은 애주에 도착하게 된다.

[오답풀이] ① 왕정윤은 애주 태수가 되어 관리의 권한으로 여화를 풀어 준다. 만청길의 과면은 왕정윤이 애주 태수에 부임하기 이전의 일이다. ② 운수 선생은 부인 엄 씨와 부인 경 씨의 조력자로서 노인에게 두 부인을 구출할 것을 부탁하기는 하지만 소상 강변에 가서 직접 두 부인을 구출하는 것은 아니다. ③ 화 소저는 화신의 딸이다. 즉 화 소저는 다른 가문의 인물이 아닌 자기 가문의 인물이 꾸민 계락을 듣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화 소저는 경몽필에게 이 사실을 전달한다. 즉, 자기 가문의 인물이 아닌 다른 가문의 인물에게 그 계락을 알려 주는 것이다. ④ 경몽필은 화 소저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부인 경 씨에게 전달하여, 부인 경 씨와 부인 엄 씨가 위협에 빠지지 않게 했다. 화 소저는 다른 가문의 인물이므로 이 진실은 적절하지 않다.

34. [출제의도] 갈등 관계를 입체적으로 파악한다.

이 작품은 선인과 악인의 대결이면서, 선인의 가족과 악인의 대리자가 선악의 구도에 포함됨으로써 대립 구도가 복잡해지는데, 이때 대결이나 갈등의 양상은 대립 구도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만청길이 선인의 가족을 잡아들이고 정몽렬이 선인의 가족의 급습을 도모하는 것은 악인의 대리자가 선인 가족과 대립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악인의 대리자가 선인 가문의 몰락을 주도한 것은 아니다. 만청길의 경우 화신의 명령에 의해 선인의 가족을 잡아들이는 점에서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몽렬은 선인 가족의 급습을 제안하기는 했으나 선인 가문의 몰락은 화신이 주도했다고 보아야 한다.

[오답풀이] ① 만청길은 안대후의 귀양지에 있는 선인의 가족을 핍박하고, 정몽렬은 안대후의 고향에 있는 선인의 가족을 핍박한다. 이 작품은 이렇게 악인의 대리자를 안대후의 가족 각각에 등장시킴으로써 선악의 갈등 상황을 입체화한다. ② 만청길과 정몽렬은 모두 화신과 한패로, 화신의 뜻을 따른다. 이렇게 이 작품은 악인과 그의 대리자를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묶음으로써 갈등 상황을 입체화한다. ③ 만청길은 화신에게 계락을 듣고, 정몽렬은 화신에게 계락을 제안한다. 이 작품은 악인과 그 대리자가 공모하는 관계로, 이를 통해 갈등 상황을 입체화한다. ④ 만청길과 정몽렬은 안대후의 가족을 해코지하여, 결과적으

로 안대후를 곤경에 빠뜨리려 한다. 이 작품은 선인의 가족을 통해 선인을 곤경에 빠뜨림으로써 갈등 상황을 입체화한다.

[화법과 작문]

35	②	36	⑤	37	⑤	38	④	39	④
40	④	41	①	42	①	43	②	44	④
45	③								

35. [출제의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을 파악한다.

발표자는 발표 중간중간에 소반에서 변죽의 기능, 해주반의 판각에 새겨진 문양 등에 대해 청중에게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을 들으며 상호 작용하고 있다.

36.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을 파악한다.

발표자는 통영반에서 다리의 곡선의 끝이 바깥쪽으로 휘어 있음을 호랑이 다리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나주반의 다리의 형태를 특정 동물의 다리에 비유하고 있지 않다. 또한 특정 동물의 다리에 비유하여 나주반과 통영반의 다리의 공통점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발표자는 [자료 1]을 활용하여, 상판과 두꺼운 변죽을 따로 만든 후 상판에 결합하는 나주반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나주반의 변죽의 형태와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37. [출제의도] 듣기 전략을 파악한다.

학생 2는 평소에 전통 가구에 대해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전통 가구인 소반에 대해 아는 것이 유익하다며 발표 내용이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발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 3은 발표 내용의 효용성을 판단하여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학생 1은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은 정보인 소반에 쓰이는 나무의 종류에 대해서 궁금증을 드러내고 있다. ② 학생 2는 발표에서 제시된 정보의 출처가 국립 △△ 민속 연구원이라는 점에서 발표의 내용이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38. [출제의도] 대화의 표현 전략을 파악한다.

(가)의 학생 1은 다섯 번째 발화에서 생태계 교란 생물의 유입을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학생 2와 학생 3이 나눈 대화를 요약하며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39. [출제의도] 대화의 맥락을 분석한다.

[A]의 대화에서 학생 2는 학생 3이 말한 내용을 재진술하면서 학생 3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외래 생물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인지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B]의 대화에서 학생 2는 학생 3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A]의 대화에서 학생 3은 우리가 필요해서 국내에 도입한 외래 생물이 왜 자연 생태계로 유출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학생 2에게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40. [출제의도] 대화 내용의 반영 여부를 파악한다.

(가)의 학생 2와 학생 3이 생태계 교란 생물을 활용하는 기술을 언급한 내용에 대해, (나)에서 단풍잎돼지풀이 약품이나 화장품의 소재로 활용되는 기술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 해결 방안을 윤리적 측면에서 보완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③ (가)의 학생 2가 외래 생물이 국내에 유입되는 경우를 언급한 내용에 대해, (나)의 2문단에서 의도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의도적으로 들어온 경우와 비의도적으로 들어온 경우로 유형화하였다.

41. [출제의도] 글쓰기 전략을 파악한다.

(나)의 3문단에서 빠른 성장과 번식 능력,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과 같은 생태계 교란 생물의 특성을 드러내어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서술하고 있다.

42.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고쳐 쓴다.

<보기>의 첫 번째 문장에서 부적절하게 사용된 조사를 교체하라는 조언을 반영하지 않고 해당 문장을 수정하였다.

[오답풀이] ② <보기>의 두 번째 문장에서 의미가 중복되는 표현인 '빈틈없이'와 '철저한' 중 '빈틈없이'를 삭제함으로써,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수정하라는 조언을 반영하였다.

43. [출제의도] 글쓰기 내용을 생성한다.

초고에서는 학교의 진로 프로그램이 피상적이라 학생들이 진로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초고에서 학교의 진로 프로그램을 다른 학교와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초고의 2문단에서 학생은 자신의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진로 계획 수립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 원인으로 진로 프로그램이 피상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⑤ 초고에서는 진로의 의미를 개인의 일생에 걸쳐 일과 관련해 얻게 되는 모든 경험과 활동으로 설명하고, 학생의 진로 선택에 따라 삶의 많은 부분들이 결정될 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만족도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진로 계획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44.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에 대해 파악한다.

ㄱ-1은 진로 계획을 수립한 학생의 비율이 매우 낮음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ㄴ은 ○○시에서 지역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진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 체험 센터를 개관하였고, 해당 센터에서 제공하는 직업 체험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음을 알려 주는 신문 기사 자료이다. 이 두 자료를 함께 활용해, 진로 계획을 세운 학생들에게 진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학교의 진로 프로그램이 피상적이라는 사례로 추가할 수는 없다.

[오답풀이] ③ ㄴ은 우리 학교 교사의 인터뷰 자료이다. ㄴ에서는, 진로 검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안내하고 있으나 진로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예산이 부족하고, 교사가 수업과 함께 진로 지도를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⑤ ㄱ-2는 실질적인 체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음을 보여 주는 설문 조사이다. ㄴ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터뷰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함께 활용해 3문단에서 학교와 대학이 협력한 진로 프로그램 확대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45. [출제의도] 조건에 맞는 글을 쓴다.

선생님은 조언에서 두 가지 내용을 담으라고 하였다. 첫째는 청소년 시기에 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고, 둘째는 진로와 관련한 직접 체험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학교와 지역 사회의 노력을 촉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청소년 시기에 진로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구체적인 진로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는 내용은 선생님의 조언 중 첫 번째 내용을 반영한 것이고, 학교와 지역 사회는 학생들이 직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은 선생님의 조언 중 두 번째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언어와 매체]

35	①	36	④	37	④	38	②	39	③
40	⑤	41	④	42	④	43	①	44	⑤
45	②								

35. [출제의도] 현대 국어의 품사를 이해한다.

㉠, ㉡은 관형사로서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 주고 조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② ㉠은 관형사이고, ㉡은 명사이다. ③ ㉢은 어간에 어미 '-는'이 결합하였고, ㉣은 어간에 어미 '-ㄴ'이 결합하였다.

36.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품사를 이해한다.

(라)에서 중세 국어의 'ㄴ'에 조사 '을'이 결합할 수 있고, 'ㄴ'이 'ㄴ'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대 국어의 접사 'ㄴ-'과 달리 명사임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중세 국어의 '어느'는 조사 'ㅣ'와 결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형사로 쓰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② (나)에서 중세 국어의 '기피'는 'ㄱ-'에 부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것으로, '노피'와 같이 부사이다.

37. [출제의도] 단어의 음운 변동을 탐구한다.

㉠은 자음군 단순화, ㉡은 거센소리되기, ㉢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은 된소리되기이다. '술하다[수타다]'는 발음할 때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따라서 '술하다[수타다]'는 ㉡, ㉣이 모두 일어난 예로 적절하다.

38. [출제의도] 단어의 구성 방식과 형성 방법을 파악한다.

'보리밥'은 앞의 어근 '보리'가 뒤의 어근 '밥'을 수식하는 합성어이므로 ㉠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리밥'이 두 어근이 대등하게 결합한 합성어인 ㉡에 해당한다고 이해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39. [출제의도] 문장의 짜임을 파악한다.

ㄴ은 명사절을 안은 문장, ㄹ은 인용절을 안은 문장이므로 (가)로 분류할 수 있다. ㄷ과 ㄴ은 관형사절을 안은 문장이며, 안긴문장 내에 생략된 성분이 없으므로 (나)로 분류할 수 있다. ㄱ과 ㄴ은 관형사절을 안은 문장이며 ㄱ은 안긴문장에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고, ㄴ은 안긴문장에 주어가 생략되어 있으므로 (다)로 분류할 수 있다.

40. [출제의도] 매체의 특성을 이해한다.

(가)의 실시간 인터넷 방송 진행자는 많은 접속자를 혼자서 상대하고 있지만, 방송에 접속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미리 안내하지는 않았다.

[오답풀이] ② (가)에서 진행자는 방송이 실시간으로 진행되니 진행이 미숙하더라도 너그럽게 봐줄 것을 바랐다. ④ (가)에서 진행자는 몇 분 동안 같은 동작을 반복할 때면 방송 진행이 더더진다고 나가 버리는 시청자들이 더러 있어서 경성 치즈를 미리 알아 왔다고 하며 알아 둔 치즈를 꺼냈다.

41. [출제의도] 매체의 소통 양상을 이해한다.

'남남'은 스낵케티 면을 삶는 물이 짜면 면이 더 쫄깃해지는 이유를 진행자에게 물었고, 진행자는 소금물로 면을 삶으면 면이 그 물을 점점 머금고 나서 면속 수분이 일부 소금물로 빠져나가고 면이 쫄깃해진다고 하였다. 진행자는 '남남'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오답풀이] ① '사과'는 진행자에게 조리대가 잘 안보인다는 점을 언급함으로써 방송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을 밝혔다. 이후 진행자는 카메라의 높이를 조절하였다. 진행자는 자신의 발화 내용에 대한 질문에 대답한 것이 아니다. ③ 진행자는 베이컨과 함께, 카르보나라의 필수 재료가 아닌 것들 중 몇

가지를 함께 볶으려고 한다며 무엇이 좋을지 시청자에게 물었다. 이에 '들판'은 자신은 표고버섯과 다진 마늘이 어우러져 나는 향이 좋다고 함으로써 방송 내용에 대한 개인적 선호를 드러냈다. 이어 진행자는 '들판'이 언급한 두 가지 재료를 베이컨과 함께 볶기로 하였는데, 이는 방송 순서를 변경하여 안내한 것이 아니다.

42. [출제의도] 매체 자료를 생산한다.

진행자가 (나)에 따라 작성한 누리 소통망의 게시물에서 ㉡을 확인할 수 있다. 진행자는 누리 소통망의 게시물 중 카르보나라 요리법을 안내하는 부분에서 요리법을 그림으로 간추려 제시하고 있다. 진행자는 방송에서 말린 고추가 카르보나라의 요리 재료가 될 수 있다고 했지만, 말린 고추를 요리 과정에서 사용하지 않았다. 누리 소통망의 게시물의 ㉢에는 말린 고추가 요리 재료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말린 고추를 재료로 사용할 때의 소요 시간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진행자가 (나)에 따라 작성한 누리 소통망의 게시물에서 ㉠을 확인할 수 있다. 진행자는 누리 소통망의 게시물 중 카르보나라 재료를 안내하는 부분에서 각 재료의 분량을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하여 나타내었다. 이는 요리에 처음 도전하는 구독자도 누리 소통망의 게시물을 보면 요리를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3. [출제의도] 매체 언어의 특성을 파악한다.

㉢의 '대로'는 앞에 오는 말에 근거하거나 달라짐이 없음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에서 '대로'는 이번 방송에서 만들 요리로 카르보나라를 선정한 것이 지난주 방송의 시청자 투표 결과에 근거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44. [출제의도]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에 대해 이해한다.

<보기>의 '규칙'에는 동아리 활동과 무관한 사적 정보를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에서는 지수가 댓글에 친구의 휴대 전화 연락처를 잘못 붙여 넣어 동아리 활동과 무관한 사적 정보를 드러냈었고 관리자가 아닌 댓글 작성자인 지수가 그 정보를 삭제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보기>의 '동아리 소개'에는 동아리의 활동 목적이 제시되어 있고, ㉡에는 동아리의 활동 목적이 간략하게 제시되면서 동아리명에 포함되는 글자가 부각되어 있다. ④ <보기>의 '규칙'에는 동아리 부원들이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고, ㉢에는 3월 셋째 주 우수 부원인 윤솔이 게시 글을 3편, 댓글을 9편 썼음이 드러나 있다. 이는 동아리의 특정 부원의 활동 내역을 공개하여 부원들의 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5. [출제의도] 매체 자료의 수용 양상을 이해한다.

댓글에서 '민승'은 자신의 주변 친구들은 OTT 업체의 요금제 체제 변화에도 구독을 해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통해, 요금제 체제의 변화가 이용자 이탈로 이어질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수익 증대로 이어져 콘텐츠의 질이 올라가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하였다. '민승'은 자신이 주변을 관찰한 바를 토대로 유료 OTT 업체의 요금제 체제 변화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예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댓글에서 '현민'은 우리 학교 학생들이 유료 OTT를 많이 이용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10대들의 유료 OTT 이용률을 궁금해하였다. '현민'은 OTT 업체의 요금제 체제 변화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예측하지 않았다.